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83회 정기공연<아트>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경희극회
활동시간	2025.12.20. ~ 2026.03.14	비고	
활동목적	1. 대학인으로서 선진적인 형식상의 다변화와 실험 정신을 가진 연극 전반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실제로 상업적으로도 공연되는 연극인 <아트>를 경희극회의 시선으로 재해석, 학생회관 소극장에 적합한 무대 구상, 공연진만의 캐릭터 분석으로 2026.03.12. ~ 2026.03.14에 극을 올린다.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2층 소극장 활동내용 : <아트>는 인물 간의 미세한 거리와 감정의 차이가 관계 전반에 어떤 균열을 만들어내는지를 섬세하게 포착하는 현대극으로, 일상적인 대사와 장면 속에 축적되는 감정의 흐름과 긴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이번 정기공연은 특히 작품이 지닌 정서와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되었다. 대본 리딩 단계에서는 세 인물(피부와 의사인 시크 포멀 스타일의 주호, 캐주얼한 성향의 환이, 우유부단하고 따뜻한 성향의 문구 회사 사장 사연) 간 관계의 미묘한 온도 차이와 가치관 대립을 짚어내는 데 집중하였다. 이후 감정 훈련과 블로킹 과정에서는 대사 톤의 리듬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동작을 배제한 절제된 연기를 통해 작품의 톤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연출부는 작품의 흐름과 리듬을 해치지 않도록 각 장의 배경이 되는 인물들의 집 공간에 따라 시선과 동선의 배치를 중심으로 장면을 구성하였다. 과장된 연출보다는 침묵과 여백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장면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객이 인물의 세밀한 감정 변화와 해체 과정을 밀도 있게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무대팀은 이번 공연의 핵심 요소로서, 작품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무대 미술에 특히 공을 들였다. 단순한 기능적 무대가 아니라, 인물 간의 거리와 관계가 공간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색감과 구조, 배치를 세심하게 설계하였다. 가벽을 활용하여 인물별 독립된 공간감을 주면서도 가벽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구조를 취하여 '집'보다는 단절된 '공간'의 느낌이 드러나도록 설계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정돈되고 미적으로 완성도 높은 이미지를 지향하여 관객이 극의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에 맞추어 조명·음향팀 또한 무대 미술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장면별 분위기와 감정선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큐를 조정하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주호의 집은 모던하고 밝은 톤으로, 사연의 집은 따뜻한 조명 톤으로 차별화하였으며, 인물 독백 시 집중도를 높이는 핀 조명과 하단 바닥을 향하는 줄조명 간접등을 세심히 제어하였다. 음향 또한 오프닝 음악의 페이드인·아웃 및 장 전환 암전 시의 효과음을 정교하게 조정하여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의상·소품팀은 텍스트에 담긴 인물의 캐릭터성을 부각하기 위해 시크하고 포멀한 주호의 슬랙스 및 셔츠 스타일과 우유부단하고 부드러운 사연의 코듀로이 자켓 등 아메카지·빈티지 풍 의상을 철저한 시간 작업을 거쳐 매치하였으며, 외출 동선에 따른 아우터 착용으로 시간적 흐름을 명밀히 표현하였다. 극의 핵심이 되는 대형 캔버스 '앙트로와'를 직접 제작하고, 5장에 등장하는 그림 낙서 장면과 6장에서 이를 복구하기 위한 물대야, 세정제, 얼룩 제거제, 스펀지 등 청소 용품 일체를 완벽히 구비하여 연극적 약속을 매끄럽게 수행하였다. 이번 정기공연의 준비 과정 중에는 작품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스태프와 배우들이 함께 모여 작품 분석과 인물별 성격에 관한 깊이 있는 캐릭터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배우와 스태프 모두가 텍스트에 담긴 의도와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해당 과정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 극회가 창작자로서의 관점과 해석 과정을 깊이 있게 공유하는 자리로서 큰 의미를 지녔다. 홍보팀은 공연의 분위기와 무대 미술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포스터 디자인과 SNS 홍보에 집중하였으며, 멀티미디어관 등 교내 홍보물 배포를 통해 관객 유입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 공연 당일에는 하우스 테이블 상주 및 외부안내, 학관 출입문 관리, 내부안내 A·B로 스태프 포지션을 체계적으로 분업하여 관객 입퇴장과 암전 시 출입문 통제를 엄격히 관리하였다. 퇴장 시에는 QR코드를 활용한 구글폼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다. 공연 전 전체 리허설과 피드백 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점검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었다. 소감 : 기타 : 03.12. 관객 68명 / 03.13. 관객 30명 / 03.14. 관객 1차 20명, 2차 16명
----------------------	---

소감 : 이번 공연을 준비하며 가장 고민했던 지점은 '앙트로와'라는 하얀 그림을 매개로 균열이 생기는 세 친구의 관계를 어떻게 무대 위에 감각적으로 구현해낼 것인가였습니다. 주호의 집은 성공한 남자의 공간답게 세련되면서도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도록 배치했고, 반대로 사연의 집은 인물의 성격처럼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인 조명 톤을 사용하여 공간의 대비를 주었습니다.

공연 중에는 특히 동선과 타이밍의 정밀함에 집중했습니다. 환이가 그림을 '판때기'라 조롱하며 퇴장한 뒤 주호가 홀로 남아 분노를 쏟아내는 독백 장면이나, 사연이 자기 집에서 정신없이 물건을 찾으며 시작되는 2장의 오프닝 등 인물의 등퇴장에 맞춰 음악과 조명이 페이드 인·아웃되는 찰나의 순간들이 극의 리듬을 살리는 핵심이었습니다. 주호가 앙트로와를 골방으로 들고 나가는 뒷모습이나, 사연의 집에서 맥주와 땅콩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일상적인 대화들 속에서 인물들의 내밀한 심리가 관객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장면에서 5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갇혀 있던 환이가 앙트로와 위에 대각선을 긋고 스키 타는 사람을 그리는 순간은 연출가로서도 큰 해방감을 느낀 지점이었습니다. 그림을 망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국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해체되었던 관계를 다시 잇는 소통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연의 마지막, 모든 조명을 끄고 앙트로와가 걸린 벽면의 조명만을 남겼다가 서서히 암전시키며, 관객들이 예술의 본질과 인간관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대를 마무리했습니다. 인물들의 날 선 감정을 무대라는 한정된 틀 안에 담아내고 시각화했던 과정은 저에게도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아트>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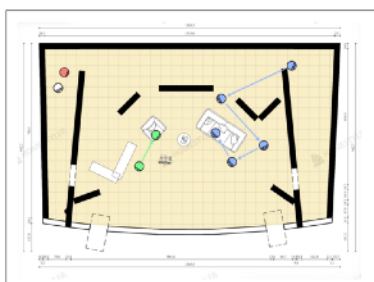


무대 설치 후



공연 당일

2장 환이 등장



사연의 집, 조촐한 그림이 있다.
사연이는 허리를 굽히고 뽕가를 열심히 찾고 있다.
사연 혼자서.

2장 시작 구성

*오른쪽 벽에 사연 그림 걸고
조명 on



동선 구상 자료(일부)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남대우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동아리 박람회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경희극회
활동시간	2026.03.11. ~ 2026.03.12	비고	
활동목적	1. 대학인으로서 선진적인 형식상의 다변화와 실험 정신을 가진 연극 전반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경희극회 홍보 및 부원 모집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 대운동장 활동내용 : 신입부원 모집, 정기공연 홍보뿐만 아니라 ‘경희극회’를 홍보함으로써 본 동아리를 알지 못하던 학우들에게 경희극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행사 진행하였다. 경희극회의 긴 역사를 볼 수 있는 사진첩과 과거의 연출일지, 대본집, 포스터, 팸플렛 등 경희극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물품들로 부스를 꾸몄다. 또 학우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발음게임, 뽑기 등)도 준비하여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 말 인형탈을 쓰고 ‘연기’하는 등 경희극회의 정체성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방식을 채택하였다 소감 : 개강 후 오랜만에 만나는 부원들과 경희극회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며 극회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선배님들이 남겨주신 사진, 기록, 일지 등을 다시 한 번 보며 극회의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경희극회를 홍보도 하고, 부원들끼리 다시 한 번 단합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말 인형탈을 쓰고 홍보하는게 단순히 홍보일 뿐만 아니라 ‘연기’로서 받아들여졌다. 동아리 홍보일 뿐 아니라 학우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극을 한다는 마음으로 임하였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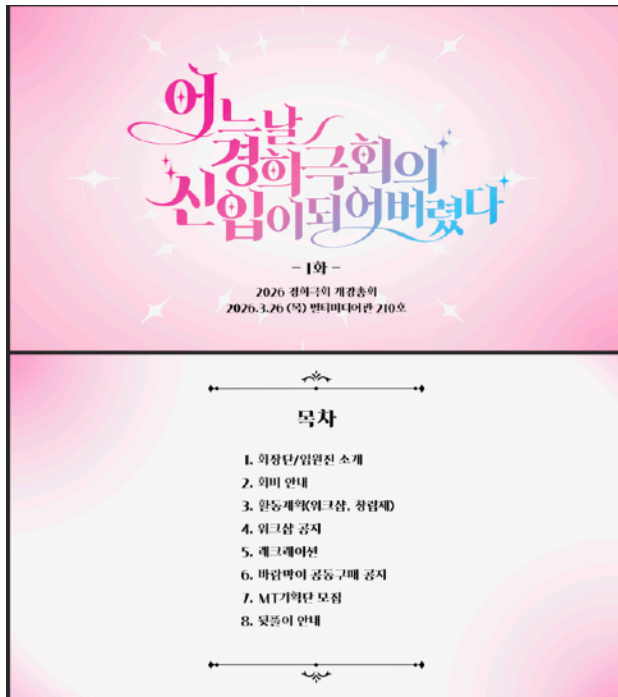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남대우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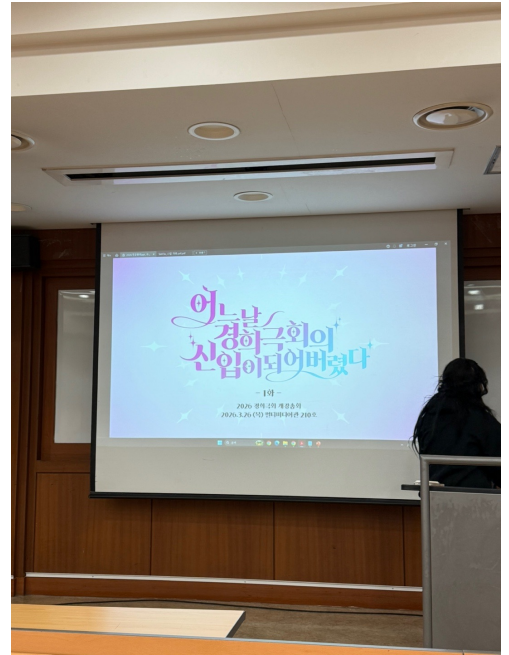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1학기 개강총회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경희극회
활동시간	2026.03.26. 18:00~	비고	
활동목적	1. 대학인으로서 선진적인 형식상의 다변화와 실험 정신을 가진 연극 전반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한 학기동안 같이 활동하는 부원들간의 친목 형성, 일정 공지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 멀티미디어관 210호, 짠(뒤풀이) 활동내용 : 개강총회를 열어 동아리의 활동 방향과 연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기공연 일정, 부서 소개, 부원 간 자기소개, 선후배 간 네트워킹 활동 등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신입생 워크숍 <옥탑방 고양이>의 극 소개와 공연진 모집을 시작하였다. 이후 친목을 위한 소규모 뒤풀이 자리도 마련되었다. 소감 : 기존 부원과 신입 부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서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이 돋보였고, 이후 진행될 연습과 공연에 있어서 좋은 팀워크의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선배 부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후배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모습은 경희극회만의 따뜻한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동아리 특성상 협업이 중요한 만큼, 이러한 첫 만남의 분위기가 공연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활동사진
(3매 이상)



개강총회 발표자료



뒤풀이 사진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남대우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1학기 총애티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경희극회
활동시간	2026.04.03. ~ 2026.04.04.	비고	
활동목적	1. 대학인으로서 선진적인 형식상의 다변화와 실험 정신을 가진 연극 전반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한 학기동안 같이 활동하는 부원들간의 친목 형성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샘말로 37 전원향기펜션 활동내용 : 경희극회는 2026년 1학기 활동의 결속력을 다지고, 신입 부원들과의 교류 및 예술적 소통을 위해 1박 2일간 총애티를 다녀왔다. 단순한 친목을 넘어서, 연극을 주제로 한 진지한 대화와 나눔이 중심이 된 애티였다. 기존 부원들과 신입 부원이 각자 좋아하는 연극 작품이나 인상 깊었던 무대 경험, 연기 고민 등을 편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공연을 하며 느낀 압박감, 무대 위 실수, 극복 방법 등도 자유롭게 공유되었다.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같은 대사를 여러 상황에 맞게 연기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제발 그만해!!!”라는 대사지만 친구가 간지럽힐때, 학교폭력의 상황,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연인에게 등의 상황을 주고 이에 맞는 연기 톤과 에티튜드를 생각하고 연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나는 연극을 왜하고 싶은가?”, “연기할 때에 스스로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것인가?”, “연극을 계속하고 싶은 이유는?” 등의 주제로 돌아가며 진지한 이야기 나누었다. 선배 부원들이 초보 시절 느낀 부담과 실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극이란 무엇인지, 현시대 연극의 역할, 경희극회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연극은 어떤 것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였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연극에 대한 깊은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외에도 조별 게임, 삼겹살 바비큐 등 즐거운 활동도 함께 진행되어, 동아리원 간의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소감 : 이번 총애티는 단순한 MT를 넘어서, 경희극회 구성원들이 ‘연극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되묻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경희극회가 지향하는 동아리의 정체성인 ‘모두가 진심인 동아리’를 위해서는 서로가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여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웠다. 배우뿐 아니라 무대, 조명, 연출 등 각 파트의 고민도 함께 나누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신입 부원들의 신선한 시각과 질문은 기존 부원들에게도 많은 자극이 되었고, 동아리의 방향성과 분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선배부원들도 자신들처럼 떨리고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감되어 더 가까워진 것 같다는 후배부원들의 피드백이 있었다.
----------------------	---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남대우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1학기 신입생 워크샵 공연 <옥탑방 고양이>, 연극 <2호선 세입자> 단체관람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경희극회
활동시간	2026.04.06. ~ 2026.06.04.	비고	정식 라이선스 취득, VOU 미디어 협업
활동목적	1. 대학인으로서 선진적인 형식상의 다변화와 실험 정신을 가진 연극 전반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실제로 상업적으로도 공연된 연극인 <옥탑방 고양이>를 경희극회의 시선으로 재해석, 학생회관 소극장에 적합한 무대 구상, 공연진만의 캐릭터 분석으로 2026.06.03. ~ 2026.06.04.에 극을 올린다.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2층 소극장

활동내용 :

제47기 신입생 워크숍 연극 《옥탑방 고양이》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학내 공연을 올리는 것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당당한 무대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관행처럼 여겨지던 비공식 공연이나 타이틀 편법 변경을 과감히 지양하고, 원작사인 (주)레드애플루 측에 공식 저작권 사용 허가를 구하는 정식 제안서를 보냈다. 마침 대학로에서 15년간 이어지던 원작 공연이 막을 내린 시점이었기에, 역설적으로 "이제 오직 경희대 국제캠퍼스 소극장 무대에서만 이 감동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상업적인 프레임의 대담한 홍보 전략을 제작사 측에 제시했습니다. 약 2주간의 긴밀한 협의 끝에, 저희의 진정성을 알아본 제작사 홍보마케팅팀으로부터 흔쾌히 정식 라이선스 승인과 함께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 대본이 아닌 정식 대본을 받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원작사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시행했다. 제작사 명기와 로고를 모든 홍보물에 철저히 반영하고, 학내 곳곳에 포스터를 부착할 때 제작사의 차기작인 연극 《2호선 세입자》 포스터를 나란히 비치해 홍보를 도왔습니다. 나아가 배우와 스태프를 포함한 동아리원들이 《2호선 세입자》를 단체 관람하기도 했다. 이에 제작사 측에서도 관객 이벤트 용 초대권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저희는 이를 활용해 커튼콜 직후 관객들과 호흡하는 경품 증정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공연 이후에는 약속대로 이벤트 현장의 생생한 사진과 홍보물 인증 자료를 제작사에 공유하며 대외 협력의 모범적인 선순환 모델을 다졌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교내 언론 기구인 경희대방송국 V.O.U.와의 유기적인 미디어 협업을 진행하여 홍보 효과와 작품의 기획 가치를 극대화하였다. V.O.U.와 공동 기획한 특별 인터뷰 영상에서는 본 워크숍이 지닌 고유한 지향점과 무대 뒤의 치열한 준비 과정이 상세히 다뤄졌다. 인터뷰에 참여한 김아인 연출은 완벽하고 전문적인 퀄리티 추구에 앞서, 아마추어로서 연극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신입 부원들이 무대 위에서 진정한 재미와 성취감, 그리고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워크숍의 핵심 목적임을 강조하였다. 다소 미숙할 수 있는 신입 배우들의 연기력을 기획진과 스태프들의 탄탄한 연출력, 기획력, 예술력으로 200% 이상 끌어올려 뒷받침하겠다는 제작 철학이 공유되었다. 또한, 대학로에서 15년간 큰 사랑을 받으며 명성을 쌓아온 메가 히트 로맨스코미디작이 막을 내린 시점에서, 이제는 오직 경희대 국제캠퍼스 소극장 무대에서만 이 감동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차별화된 상업용 프레임의 홍보 전략을 소개해 학내 구성원들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신입생 워크숍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본을 각색하여 원래 남녀 주인공과 멀티맨 등 총 4인극으로 구성된 원작 대본을, 최대한 많은 신입 부원들에게 무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멀티맨의 배역을 촘촘하게 쪼개어 총 11개의 역할로 나누었다. 정은, 경민, 몽치, 겨양이 등 기존 캐릭터 외에 정은 친구 원준, 경민 여사친 지원을 비롯해 태배, 열쇠, 통달, 초밥, 춘식 등 개성 넘치는 멀티 배역과 아빠, 엄마, 부동산 아저씨 박돌출, 부동산 아줌마 이미선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최대한 많은 신입생들의 극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작품의 핵심 배경인 옥탑방 내·외부 공간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무대 디자인 과정에서는 공간의 내·외부를 동시에 상연하기 어려운 소극장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바퀴를 장착한 이동식 가벽과 고정형 가벽을 혼용 배치하는 시도를 하였다. 중앙 가벽은 외부 형태로 세팅한 후 뒤쪽에 커튼 공간을 별도로 설계하여, 장면이 전환될 때 부피가 큰 평상 구조물을 커튼 뒤로 신속하게 숨길 수 있도록 동선을 만들어냈다. 또한, 극 중 부엌 공간의 싱크대 하부장과 화장실 문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배우들의 연기 동선 방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를 보완하였다.

더불어 극의 전개와 안전을 고려한 디테일 소품 및 안전 장치도. 극 중 고양이가 뛰어내리는 단차 구간에는 배우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튼튼한 벽돌 난간 세트를 제작하여 배치하였으며, 사람이 직접 들어가 숨을 수 있는 크기로 변형된 개집 구조물을 무대 위에 유기적으로 안착시켰다. 이와 함께 실외기, 장독대, 화분, 빨래걸이와 대야, 배달 가방 및 헬멧 등 실제 옥상에 존재할 법한 소품들을 배치하여 극의 현실감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무대 제작 및 설치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철저한 타임라인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실행되었다. 4월 말 디자이너들의 무대 시안 최종 제출을 시작으로, 5월 중순 소품 발주와 가벽 조립 및 1차 페인팅 작업을 순차적으로 완수하였다. 타 동아리의 소극장 이용 스케줄을 고려하여 5월 31일로 무대 설치일을 최종 조율하여 대어를 시작하였으며, 설치 직후 배우들의 동선 확인 및 조명·음향 테크니컬 리허설을 밀도 있게 진행하여 무대 완성도를 완벽하게 점검하였다. 6월 초 양일간의 본 공연이 마무리된 직후 신속하게 무대 세트를 전면 해체하고 소극장을 원상 복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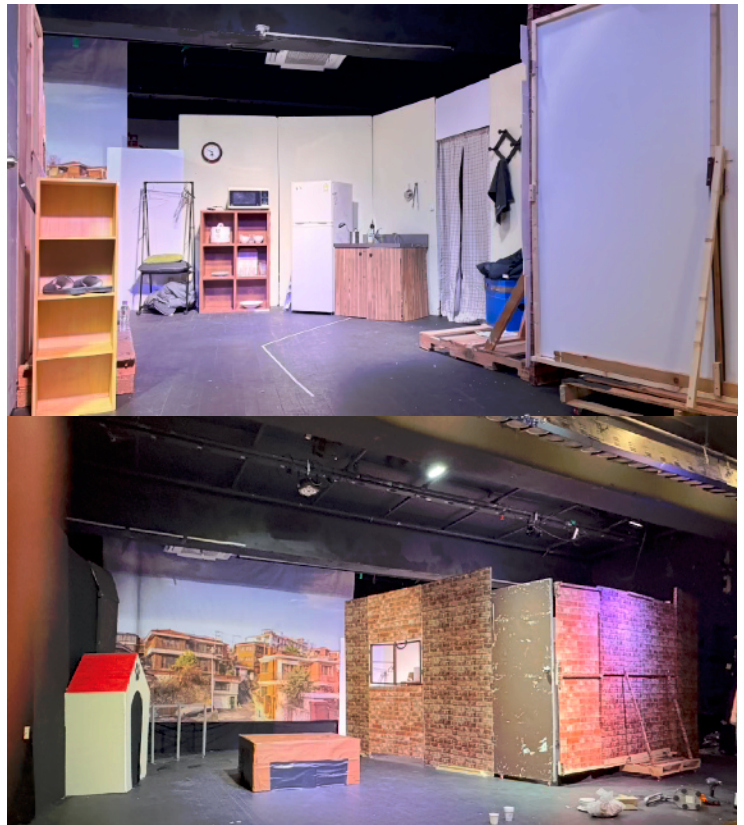
V.O.U 미디어 협업 영상 '되돌릴 수 없는 단 3번의 무대 | [경희극회와의 100분]'

<https://www.youtube.com/watch?v=V9NZ3kueIVk>

소감 : 배우 정재민, 힘든 점은 아무래도 한 번도 이런 식의 캐릭터가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 캐릭터가 살아본 방식대로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 거의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인 척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이 어색했어요. 캐릭터라기보다는 가면(페르소나)을 새로 쓰고 나를 덧입히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기도 하고 아버지도 아닌 스스로가 딸을 둔 아버지(캐릭터)를 이해하는 과정, 부모님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로 제 자신을 채우는 과정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표현을 하려면 극에 나오는 인물의 과거 서사까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상상 노트를 만들어 캐릭터를 분석했었습니다. 무대감독 서혜민, 저는 연극은 현장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달 동안 준비하고 스태프들이 무대를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공연 날 관객분들이 앉아서 실시간으로 소통하잖아요. 무대와 연기를 보고 사람들이 웃고 눈물 흘리는 반응이 바로 느껴지니까 그게 제일 매력적입니다. 조연출 최주호, <옥탑방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상업성이 엄청나게 인정받은 극이기 때문에 평소 정극을 대할 때처럼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상업극을 보러 갔을 때 기대하게 되는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생각을 하면서 연출을 했습니다. 영화와 달리 연극은 다회차 관람을 했을 때 첫 번째 봤던 거랑 두 번째 봤던 거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게 대중적인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았다. 한창 준비해서 무대 올리고 공연하고 내려왔을 때, 그리고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무대를 모두 해체하고 난 뒤 느껴지는 기분이 있다. 무대를 내리면 '내가 정말로 여기서 했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 무대에 설 만큼의 자격이 된다는 걸 계속 증명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그게 경희극회의, 연극의 매력이라고 느꼈다. 연출 김아인, 프로의 영역이 아니라서 느끼는 건데,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장면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2호선 세입자 단체관람>



무대설치 작업



포스터



무대 디자인 시안

활동사진
(3매 이상)

수신: (주)레드연봉루 담당자님

김영(대표)은 “최저임금도 10% 이상 올랐는데, ‘같이계정’을 해서 2009년도 1학기 전입생 위크숍 연공을 할게요”고 같이언급했다.

오랜 시간 대학교의 성원으로써 저희 대학생들에게 큰 위로와 웃음을 주었던 연극《육형제 고양이》를 제작하고 이끌어오신 귀사에 깊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차의 경호국회는 다가오는 2022년 5월, 01회 차기 워크숍 공편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대에 올리고자 합니다. 평소 이 작품을 통해 사뭇다른 학생들의 간결한 작품을 담아, 본 작품의 자작권 사용 해가를 절충해 요망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공연의 성격 (순수 비영리 공연)

- **출판** **장소**: 경희대학교 국제학교 출판부 (경희대 국제)
- **발행** **기간**: 정간 7월호 {7월호는 발행부 수량 없음}
- **간격** **규모**: 200~250쪽 지면 넓이 130~140쪽 수량 500~600부

2. 상업적 상황에 대하여

- 공연 시절: 1982년 많은 사람들이 잊어 버린 연극《유희왕》과 《아름답고 지는 꽃》을 1월로 다시 공연하여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 공연 성격: 전체 상업 공연이 상연되지 않는 시기이며, 개척 공연은 학교 내 소극장에서 진행됨
- 대성공적 작품은 무려 7작품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에 전혀 없는 순수 예술 공연인 만큼, 극사실주의를 존중하며 준비되었습니다.



연기 연습 전 몸풀기

저작권 허가 요청서(일부)



의상 및 소품



무대 설치 작업



블로킹 연습



무대 설치 작업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남대우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84회 정기공연 <Drinking Alone>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경희극회
활동시간	2026.07.07.~ 현재	비고	
활동목적	1. 대학인으로서 선진적인 형식상의 다변화와 실험 정신을 가진 연극 전반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Norm Foster 작 <Drinking Alone>를 경희극회의 시선으로 재해석, 학생회관 소극장에 적합한 무대 구상, 공연진만의 캐릭터 분석으로 2026.09.02.~2026.09.05.에 극을 올린다.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2층 소극장 활동내용 : 경희극회는 현재 2026년 여름 정기공연 <Drinking Alone>을 준비하고 있다. 연출 현윤경, 유환이가 Norm Foster의 1998년 동명원작을 한국정서에 맞게 거의 재창작 수준의 번안/각색하였다. 7월 7일부터 7월 16일 까지 배우들은 대본 리딩과 캐릭터 분석에 집중한 연습을 진행, 스태프는 무대 디자인, 의상 및 소품 시안을 준비하였고 7월 20일 이후로는 두 연출의 디렉팅에 따라 구성한 초기 무대에서 구체적인 동선 및 블로킹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스태프들은 소품과 의상을 확정하고 실제로 구입, 제작한다. 소감 : 극을 번안하고 각색하면서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극을 만들어가는 재미, 캐릭터를 상상하고 그 속에 메시지를 담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배우로서 원래의 나 자신과는 다른 캐릭터를 분석하고 연기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또 1990년대인 극의 시대 배경의 특성상 윗 세대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다. 향후 계획 : 남은 준비 기간 동안 경희극회는 다음과 같은 일정을 중심으로 공연을 완성해나갈 예정이다. 8월 24일 : 무대 설치 및 기술 리허설 진입 / 조명·음향 큐 확정 / 배우 런스루 집중 8월 28일 이후 최종 리허설(드라이 런 / 테크 런 / 드레스 리허설 등) 9월 2일 ~ 9월 5일 : <각자의 술잔> 본공연, 관객 피드백 수집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남대우 (인)